

제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21조 내지 제22조에 의거 제9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일 시 : 2009년 3월 27일 (금) 오전 9시

2. 장 소 : 인천상공회의소 1층 대강당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7번지)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보고

나. 부의안건

- ① 제1호 의안 : 제9기(2008.1.1 ~ 2008.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1주당 배당금 : 150원)
- ②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 ③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④ 제4호 의안 : 감사위원 선임의 건
- ⑤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⑥ 제6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

주주총회소집공고

2009 년 3 월 11일

회 사 명 :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용만, 최승철, 김용성, 신오식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7-11
(전 화) 032-211-1114
(홈페이지) <http://www.doosaninfracor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관리부문장 (성 명) 전무 장 명 호

(전 화) 02-3398-83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9기 정기)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임인택 (출석률: 93%)	김중석 (출석률: 83%)	김철수 (출석률: 87%)	윤종현 (출석률: 100%)	신명균 (출석률: 87%)	노후건 (출석률: 93%)	한정기 (출석률: 83%)	신희택 (출석률: 47%)
			찬반 여부							
1	2008.01.16	- 임원선임의 건	찬성	-	찬성	-	찬성	찬성	-	불참
2	2008.02.04	- 2007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2008년 및 중기경영계획 승인의 건 - 현진법인 지분 양도 승인의 건 - 2007년 하반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건	찬성	-	찬성	-	불참	찬성	-	찬성
3	2008.02.26	- 감사위원장의 2007년도 감사보고 - 2007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 주식매수선택권부여 취소의 건 - 제8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승인의 건 - 제8기 정기주총 목적사항 승인의 건 -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승인의 건	찬성	-	찬성	-	찬성	찬성	-	찬성
4	2008.03.21	-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이사회 의장 선임의 건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배정의 건 - 이사겸직 승인의 건 - 사외이사후보 추천자문단 위원 선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	2008.05.06	- '08년도 1/4분기 결산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6	2008.05.14	- 타법인 출연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7	2008.07.18	- 이사 아닌 임원 선임의 건 - 2008년 상반기 결산보고 - 2008년 상반기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평가보고 - Stock Option 대법원 판결에 따른 보고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8	2008.08.28	- 타법인 출자 및 출자지분 담보제공의 건 - DEU의 Moxys사 인수 보고 - 감사위원회 활동 구두 보고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불참
9	2008.10.10	- 자사주 특정금전신탁 계약기간 연장의 건 - 독일 ATL社 자산인수를 위한 신규법인 인수 설립의 건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10	2008.10.23	- 2008년도 3/4분기 결산 보고	찬성	불참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11	2008.11.12	- 방산사업부문 물적분할 승인의 건 -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 이사아닌 임원 선임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2	2008.12.24	- 방산사업부문 물적분할 종료 보고총회 같은 이사회 의결 공고의 건 - 사모사채 발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13	2009.01.21	- 공모사채발행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14	2009.01.28	- 사모사채발행 승인의 건	찬성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불참
15	2009.02.04	- 2008년 및 중기경영계획 승인의 건 - 2008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 사외이사후보 추천 자문단 위원 선임(보선) - 2009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방법 결정의 건	찬성	불참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감사위원회	이희수 노훈건 신희택	'08.02.04	- 2007년도 결산감사 보고 - 2007년도 하반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가결 가결
감사위원회	이희수 노훈건 신희택	'08.02.26	- 2007년 결산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승인의 건 -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의견서 승인의 건	가결 가결 가결
감사위원회	한정기 노훈건 신희택	'08.03.21	- 감사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상동	'08.05.06	- 2008년 1분기 결산 검토보고 및 2008년도 감사계획 보고	가결
감사위원회	상동	'08.07.18	- 2008년 상반기 결산 검토보고 - 2008년 상반기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평가보고	가결
감사위원회	상동	'08.10.23	- 2008년 3분기 결산 검토보고	가결
감사위원회	상동	'08.11.06	- 대회계 ISSUE관련 결과보고(연회)	가결
감사위원회	상동	'08.11.12	- 임시주총 의안 및 관련서류 조사 - 감사보고서(주총 감사보고)	가결
감사위원회	상동	'09.02.04	- 2008년 결산감사보고 - 2008년 하반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	가결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임인택 김철수 신명균 신희택	'08.02.26	- 사외이사후보 추천의 건	가결
내부거래위원회	김철수 임인택 한정기 김종석 윤종현	'08.03.21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가결
내부거래	상동	'08.05.06	- (주)두산 정보통신BU와의 내부거래	가결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위원회			승인의 건 - 두산메카텍(주)과의 '08년 시설공사 거래 승인의 건 - '07년도 내부거래 실적 보고	가결 가결
내부거래 위원회	상동	'08.08.28	- 두산모트롤(주)과의 내부거래 승인의 건	가결
내부거래 위원회	상동	'08.12.24	- 두산건설(주)과의 내부거래 승인의 건	가결

- 이희수 감사위원장 2008.3.21 사임, 한정기 감사위원장 2008.3.21 선임
- 2008.3.21 주총시까지 이희수 이사가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결 및 보고 받음
- 2008.3.21 주총후부터는 한정기 이사가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결 및 보고 받음
- 2008.3.21 가재환 이사, 안강민 이사, 이희수 이사 내부거래위원 사임
- 2008.3.21 한정기 이사, 김종석 이사, 윤종현 이사 내부거래위원 선임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사외이사	8	15,000	437	55	
사내이사	7		9,089	1,298	

*주총승인금액 15,000백만원은 사내외이사 총 보수승인 금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증자참여	DII	2008. 9. 4	597	1.8
증자참여	DII	2008. 11. 26	1,192	3.7

- 당사 '07년말 자산총액(32,073억원) 또는 매출총액(37,199억원) 중의 1% 이상 거래 해당 건임.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DII	증자	2008.9-2008.12	1,789	5.6

- 당사 '07년말 자산총액(32,073억원) 또는 매출총액(37,199억원) 중의 5% 이상 누적 거래 해당 건임.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 건설기계 : 건설기계 산업은 자본 집약형 산업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이 불가피하여 대규모의 시설 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이다. 또한 건설업에 대한 종속성이 높아 내수에 의존할 경우 전방산업인 건설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므로 건설 경기의 기복이 심한 국내의 경우 계획 생산이 어려워 수출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수출지향형 산업이다.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산업은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서 소재부터 부품에 이르기까지 기계 산업 전반의 기술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산업이다. 그리고 엔진, 동력 전달장치, 유압장치 등 다양한 부품의 가공 조립산업으로서 관련 부품산업의 발전과 계열화 정착이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특히 핵심 부품기술은 오랜 경험과 기술 축적을 필요로 하는 고급 기술 수준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건설기계 산업은 계절적 수요의 탄력성이 큰 산업으로 가동율이 떨어지는 우기철 및 중고 장비의 판매가 줄어드는 8월~11월은 비수기로서 건설기계 시장의 수요가 줄어들고 상하수도 공사 및 토목공사가 활발해지는 3월~7월은 국내시장 최대 성수기로서 시장이 크게 증가하는 계절적 수요의 탄력성이 매우 큰 산업이다.

- 공작기계 : 공작기계 산업은 크게 절삭가공과 성형가공 부분으로 분류되며, 그 활용분야는 주로 자동차, 항공기, 선박을 포함한 기계류의 부품제작에 활용되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이다. 또한, 제조업의 설비투자 동향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일반기계 산업, 전기전자 및 통신반도체 제작기계의 기반이 되는 관계로 업종 관련 지수에 선행하며 특히 자동차관련 산업에 큰 영향을 받는다. 자동차 제조업체의 대형화로 신규수요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산업의 확대로 무인 자동화 장비와 Internet을 통한 Parts 구매, 발주 System, 생산 일정관리 및 원격진단 서비스 기능을 갖춘 High Technology Controller 내장형 장비쪽으로 공작기계 산업의 주요방향이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다.

- 산업차량 : 산업차량은 자동차(부품), 음식품, 철강, 화학, 섬유, 전자통신, 제조업, 물류/유통/하역사업, 건설분야 등의 수요에 영향을 받는 산업으로서 수요가 광범위하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OEM 수출에서 벗어나, 독자 모델 개발을 통해 생산된 자가상표 수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수출 산업의 역군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의 물류합리화 추진에 힘입어 지게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과거의 일반적인 경쟁요소인 가격, 성능, 서비스 및 원활한 판매 Network는 물론, 핵심사업에 집중하려는 최근의 시장경향에 따라 차량의 보수, 유지까지 포함하는 Total Product Support의 제공이 추가적인 경쟁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2) 산업의 성장성

- 건설기계 : 건설기계의 세계 총 생산 규모는 2008년 1,580억 달러 수준이고, 연평균 8.6%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다. 국내 건설기계산업 규모는 세계 시장의 2008년 5.6%의 규모로 미국, 일본, 스웨덴, 독일, 중국, 핀란드, 영국에 이어 세계8위 생산국으로 세계 수출 시장의 약 9.5%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국내 제조업 중 차지하는 생산 비중은 1980년 0.17%에서 2008년에는 0.62%로 증대 되었고 전 산업 중 수출 비중은 1980년 0.03%에서 2008년 1.58%로 확대 되었다. 전략 기종의 핵심 기술 집중 개발, 생산 기종의 다양화, 건설기계산업 인프라 구축, Brand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2020년 생산 수출 규모 430억 달러의 국내 7대 생산 수출 품목으로 국내 기계 산업 발전 견인차가 될 것이다. 세계 건설기계산업은 2006년 977억달러로 2001년 이후 연평균 11.3%라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후 북미 및 유럽지역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2011년에는 연평균 6%, 시장수요 1,3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위축으로 북미, 유럽 지역의 건설 기계 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 섰으나, 중국을 필두로 한 동유럽, 러시아, CIS 국가, 중동, 남미 국가 등 신흥국가들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강한 성장세를 보임으로써, 세계적인 건기 시장의 수요는 전체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 공작기계 : 2008년도 국내 공작기계 산업은 세계경제의 고유가, 고환율 등의 영향으로 경기가 하반기로 갈수록 둔화되어 기업들의 투자계획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수출 위주 업종인 자동차, IT, LCD/PDP산업 등 환율 상승에 따른 채산성 향상 업종과 고유가에 따른 대체 개발산업(풍력) 등을 위주로 설비투자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어

국내 공작기계 업체들은 신제품 개발로 신규 수요를 창출해 가면서 매출확대를 꾀하고 있다. 최근 공작기계 시장은 고가장비 시장의 장기적인 수요 감소로 standard형 장비와 저가형 장비의 가격경쟁력 확보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비절삭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복합장비와 고속, 고정밀 장비개발능력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에 제품 Reliability 확보와 원가경쟁력도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Factor가 될 것이다.

- 산업차량 : 2008년 상반기는 지속적인 유가급등, 원자재 상승 등 대외 환경이 열악하여 국내 경기는 침체 국면이었으나 조선, 철강, 자동차등 주요 산업의 수출 호조와 계절적 성수기에 힘입어 전년 동기보다 4% 성장을 하였으며, 2006년 6%의 성장을 보였던 세계시장은 2007년 북미시장은 침체이나 서유럽을 비롯한 동유럽, 중동 지역 등 신흥국가의 높은 성장으로 전년비 21% 증가 하였다. 2008년 상반기는 북미 및 서유럽 시장의 침체로 전년동기대비 2%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성장의 주체가 신흥시장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는 양상을 띄면서 신흥시장내 판매 네트워크 강화 움직임이 Monitoring 되고 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건설기계, 공작기계, 산업차량, 엔진 등 당사의 주요 사업은 건설 경기와 자동차 경기를 비롯한 전방산업의 수요 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사업 분야로서 전반적인 국내경기 상황, 정부의 사회 간접자본 투자정책과 해외 경제동향 등에 따라 수요가 좌우된다. 또한 환율변동에 의하여 국가별 가격 경쟁력이 결정되므로 최대 소비 시장인 미국의 달러화, 유럽의 Euro화와 당사의 경쟁업체가 집중된 일본의 엔화 추세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특성을 띄고 있다.

4) 경쟁요소

- 건설기계 : 건설기계 산업은 현재 완전 경쟁 체제로써 기존 두산, 불보, 현대 이외에도 일부 후발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수입선 다변화 이후 외국사의 국내 진출이 확대되면서 내수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또한 업체간 성능, 품질 등의 수준에 있어서 격차가 축소되면서 가격, 판매망 확보 및 A/S 등이 주요 경쟁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 공작기계 : 공작기계 및 시스템 시장은 완전 경쟁 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다수의 후발업체가 시장에 참여하여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업체간 품질 수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격, 판매망 확보 및 A/S 등이 주요 경쟁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당사는 이에 따라 해외시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품질, 해외판매망, A/S 등의 꾸준한 보완을 통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 주요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공작기계 시장에서의 생존 전략은 역량있는 딜러발굴 및 육성을 통한 Sales Network 및 Product Support의 강화에 있다. 따라서 당사는 제품의 신뢰성과 성능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술자료를 DO MSS(Doosan Infracore Marketing Support & Solution)을 통하여 제공하고, 제품간 부품의 Global Standard를 바탕으로 원가경쟁력을 높여 매출확대를 통한 수익성 확보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산업차량 : 현재 완전 경쟁체제로서 다수의 후발업체가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내수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업체간 품질 수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격, 판매망 확보 및 A/S 등이 주요 경쟁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해외시장에서는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품질, 해외판매망, A/S 등의 꾸준한 보완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주요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환경 규제 만족이 Issue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제품 개발, 마케팅 강화등 환경 선도 업체로서의 이미지 구축 경쟁을 펼치고 있다.

5) 자원조달상의 특성

그동안 건설기계, 산업차량, 공작기계 분야의 부품 국산화가 활발히 추진되어 국산화율이 많이 높아졌으나, 건설중장비, 산업차량의 유압부품과 공작기계의 제어시스템 등 일부 핵심부품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서 이들 핵심부품의 국산화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Global Outsourcing 및 Global Standard에 의한 기종 간 부품 표준화를 통하여 절대 부품수를 감축하여 원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6) 관계 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및 지원 등

- 건설기계 : 그동안 건설기계사업자는 시, 도 에 간편 신고만으로 사업을 할 수있는 신고제에서 건설교통부에 등록을 하여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등록제로 변경되었으며, 등록시 건교부는 수급조절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용 건설기계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년 7월 18일 공포된 상황이다. 동 법안은 현재의 건설기계 공급량이 포화상태여서 그 등록을 제한하여 사용자(대여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 정부의 규제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 신고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를 제작, 조립하는 경우 작업 및 도로운행시의 환경오염과 교량 등 대형 시설물의 파손방지 및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성능과 안전성이 확보된 건설기계가 제작 및 수입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형 건설기계의 도로운송 제한 : 도로법에 따라 도로운행이 제한되는 기준은 크게 차량제원에 대한 기준과 중량에 대한 기준이 있다. 차량제원에 대한 기준은 길이가 16.7m, 너비 2.5m, 높이 4.0m~4.2m 를 초과할 경우, 중량에 대한 기준은 총중량 40톤, 축중 10톤을 초과하는 경우가 기준이다.

- 공작기계 : 대일지역 수입규제 조치인 수입선 다변화 제도가 1999년 6월말에 전면 폐지되어 2001년부터는 일본등 유명메이커 제품의 수입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추진중인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내수 시장의 일본 중고제품 수입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WTO 체제의 출범 이후 수출 기회가 확대되는 반면, 선진유명메이커 제품의 국내 진출이 확대되고, 환경, 공정경쟁, 기술 등 무역과 관련된 새로운 통상이슈들이 대두될 것으로 보여 품질향상, 원가절감 등 제품 전반에 대한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 또한 A/S 강화 등 영업력 배양을 통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 경쟁사와의 업무 제휴를 통한 틈새시장 공략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 IMF 경제상황으로 수요 급감, 부도 급증, 설비투자 감소, 건설 및 토목경기 급감으로 내수 전제품의 수요가 크게 감소했던 국내 건설기계 경기는 2000년 이후 연평균 8%대의 꾸준한 시장 증대가 이루어졌으나,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등 지속적인 건설경기의 악재가 쏟아지면서 2005년 하반기는 시장수요가 하락으로 반전했다. 그러나 2007년 대선, 행정수도 이전 본격 착수, 2기 신도시 건설 등 국내 건설산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향후 국내 건설기계 시장은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되리라 예상된다. 당사는 차세대 휠로더 도입, 영업 체질 개선, Product Support 강화 등을 통하여 국내 Market Leader로서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며, 적극적 해외 시장 개

을 통하여 해외 판매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아프리카, CIS국가 등 신시장 개척은 물론 기존 현지 유통망(법인 및 Dealer)과의 심층 접촉, 유럽 관련 지원구조의 전방위 체제로의 변경, 상품군 확대 등 다각적인 판매 확대책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SOLAR-V 모델 굴삭기, MEGA-V 모델 휠로더, G5모델 지게차, 고수익성 머시닝센터, 저가모델 공작기계, High-End형 고수익성 머시닝센터 및 터닝센터 등 신제품의 세계 시장 진입에 성공하여 지속적인 수출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영위하는 당사는 기업의 제 활동간의 상호관계 및 제품, 제조공정의 특징, 시장 및 판매방법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부문을 구분하였다.

- 건설중장비 : 굴삭기, 휠로더, 스키더로더, 지게차 등
- 기계 : CNC선반, 자동화시스템, 육상용 및 선박용엔진, 발전기엔진 등
- 기타 : 방산, 부품 등

(2) 시장점유율 등

▶ 굴삭기

회 사 명	2008년	2007년	2006년
두산인프라코어	44.1%	41.8%	41.5%
볼 보	30.8%	32.5%	28.6%
현대중공업	25.1%	25.7%	29.9%

▶ 공작기계

회 사 명	2008년	2007년	2006년
두산인프라코어	46.2%	49.0%	36.7%
WA	35.7%	35.0%	34.4%
화천	11.1%	10.0%	12.2%
기 타	7.0%	6.0%	16.7%

※ 기 타 : S&T중공업(구.통일중공업), SMEC(스펙) 외

▶ 지게차

회 사 명	2008년	2007년	2006년
두산인프라코어	51.7%	55.6%	60.1%
Clark	23.5%	20.8%	18.8%
현대중공업	20.6%	18.1%	16.7%
두산모트를 *)	4.2%	5.4%	4.4%

*) 구.동명모트를 : 2008. 6. 25. 두산계열사로 편입됨(2008. 6. 26. (주)두산 공시 참조)

(3) 시장의 특성

- 건설기계 : 건설기계 시장의 국내 수요는 건설 및 토목경기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건설경기의 영향에 따른 시장의 변동폭이 심하다. 고객은 중장비 임대업체가 약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타 자가 업체 및 군 관납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임대업체 대부분이 영세 차주겸 기사로 기존 고객이 반복구매를 하고 있으나 제품에 대한 충성도가 낮고 판매조건 및 경제상황에 따라 민감하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1999년 수입선 다변화 이후 외국사의 국내 진출이 확대되면서 판매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

- 공작기계 : 국내 수요업체는 가격을 구매의 제1요인으로 두고 경제형 장비를 위주로 구입하고 있으며, 중/대기업은 무인운전을 목적으로한 자동화 시스템(FMS/C)의 도입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조선, 중장비 산업의 호조로 대형 장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고속, 복합형 정밀가공용 장비와 Internet Network을 활용한 Cyber Technology의 상용화로 고객의 장비와 공작기계간 원격서비스를 지원하는 High Performance 장비의 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공작기계 시

장의 주요 고객 층은 자동차 산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지만 고유가의 영향으로 점차적으로 항공, Oil, 조선, 의료정밀기계 및 대체에너지 개발산업(풍력 등)부문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대형화, 고속화, 고정밀화 등의 시장 수요Trend에 맞추어 제품 Line-Up이 High Technology화되고 있으며 가격 경쟁력을 갖춘 저가형 기종의 개발도 꾸준히하여 시장의 양분화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자율지능화의 개념이 추가되어 장비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웹기반 시스템의 통합 운영 관리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장비의 개발/보급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산업차량 : 산업차량은 전 사업에 걸쳐서 광범위한 수요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제품이다. 또한 기업들의 설비투자, 물류(운반/보관 포함)산업의 증가 정도에 따라 시장의 변동폭이 크며, 최근 국내시장은 성장단계를 지나 성숙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 시장은 중국 업체가 내수 중심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 진출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북미 시장의 침체와 서유럽 시장의 정체 예상, 원자재 가격 인상등으로 가격 경쟁, 신흥 시장 진출이 한층 심화 되고 있다. 특히 1분기 대비 2분기에 원자재 가격 인상 Impact가 본격화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가격 경쟁력은 더욱 치열한 상황이다. 당사는 고객의 다양한 욕구와 환경규제를 충족시키는 차세대 지게차 신제품을 2006년부터 2007년 3월까지 전기중 출시 하였으며 중국 업체의 세계 시장 진입과 저가 공세를 취하고 있는 일본 제품에 대응하기 위하여 차세대 신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중국 시장의 빠른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형 지게차를 순차적으로 도입하여 중국에서의 판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당사는 이러한 제품 전략을 통해 2007년 시장에서의 높은 호응도를 얻었고 2008년에는 환경 친화적이며 안전기능을 강화한 제품 도입과 Line Up 확대를 통하여 선도 업체로의 확고한 입지를 구축 중이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 사항 없음.

(5) 조직도

(2009년 3월 6일 기준)

구 분	BG/부문	비 고
Top Management (회장, 부회장, 사장)	건설기계 BG	굴삭기 등 생산/판매 BG
	공기자동화 BG	공작기계 등 생산/판매 BG
	산업차량 BG	지게차 등 생산/판매 BG
	엔진소재 BG	디젤엔진 등 생산/판매 BG
	관리지원부문	지원 기능
	기획조정실	지원 기능
	경영관리총괄	지원 기능
	기술원	연구소

※ 직할조직 : 인력개발, EHS

※ BG : Business Group

EHS : Environment Health Safety

DPS: Doosan Production System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1) 건설기계BG

2008년도의 건설기계BG 사업은 세계적 경기침체로 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도 BG 전체는 전년대비 3.4% 성장하였고, 국내 시장점유율 44.1%로 1위, 중국시장점유율 19.2%로 1위를 차지함으로써 국내외 건설중장비업체의 Top Brand 위상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수익원이 될 신규 라인업을 대거 확보하였으며, 특히 굴절식 덤프트럭(ADT)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노르웨이 Moxy사를 인수해 초대형 제품군의 진입기반을 마련하였고 2007년 개발한 2.7톤, 3.5톤 외에 3톤, 6톤, 8톤의 소선회 굴삭기 개발을 완료하여 미니 소선회 Full Line-Up을 갖추었습니다. 굴삭기에 버금가는 중국 휠로더 시장의 공략을 위해 엔타이에 휠로더 공장 건설을 완료하여 개발된 중국형 휠로더를 12월부터 판매하였으며, 11월 Global Best Practice 기준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한 ERP 시스템 "DOOINS"를 오픈하여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2009년도 건설기계BG는 건설기계 시장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매출목표를 전년대비 3.4% 상승한 1조 5천억원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특히 핵심 시장인 중국에서 압도적 1위를 확보하기 위해 굴삭기의 지속적인 시장점유율 확대와 함께 신규 제품의 적극적 판매 확대를 2009년 공격적 성장목표를 달성한다는 전략입니다. 향후 2년간 예상되는 시장 Downturn 시기를 내실화의 기회로 삼아 신형시장과 선진시장에서 딜러망 강화와 부품공급 역량 확대 등 기본 역량의 강화를 추진하고, 해외공장의 운영혁신을 지속해 생산과 제품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2) 공기자동화BG

2008년도의 공기자동화BG 사업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세계경기 침체, 신용 경색, 투자 위축 등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되었으나, 품질 향상, 가격경쟁력 확보, 신기종 출시, Delivery, After Service 등 고객의 Needs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전년 대비 0.1% 성장한 매출 9,200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SIMTOS 2008, 중국 CIMES 2008, IMTS 2008 등의 Global 전시회에 적극 참가함과 동시에 TT / MX Open House Show, China-DIMF 2008 등 자체 전시회 및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Brand 인지도를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09년에는 금융위기가 실물경기로 확대되면서 중국을 제외한 유럽, 미국 등 주요 Global 시장에서 경기위축이 예상되고 있으나, 신기종 출시를 통한 제품 Line-Up 강화, 고부가가치의 High-End 제품 판매 확대, 제품의 Global Reliability 확보, 다양한 판매 Promotion 추진 등을 통해 성장세를 지속·유지시켜 공작기계 및 자동화 사업에서 World Best의 업체로 도약하는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아울러 2008년에 완공한 국내 최대 규모의 공작기계 연구개발센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기관들과 글로벌 R&D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제품설계, 기초요소기술, 고객위주 응용기술, 시스템 최적화 등 연구개발을 강화하여 여기서 확보한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고효율 장비 위주로 바뀌고 있는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고부가가치 대형 및 복합가공장비의 물량 확대와 동시에 LEAN, PSM, DTC 등의 운영혁신에 더욱 정진하여 안정적 흑자구조를 유지,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며, 항공/

군수, 유전/가스, 발전설비, 의료 등 다양한 산업수요에 맞춰 사업 분야를 다양화함으로써 조기에 World Top 업체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3) 산업차량BG

2008년도의 산업차량BG 사업은 전년도 전 기종 신제품 출시를 통한 제품의 성능개선을 바탕으로 국내시장을 선도하는 Market Leader(시장점유율 52%)의 위상과 수출시장에서 Brand 이미지 확고히 하였습니다. 2008년 상반기에는 미국 시장 침체에 의한 매출감소, 원자재 상승, 유가 인상 등 Risk 요인을 사전에 대처하였으며 유럽과 BRICs 등 신흥시장에서 딜러 역량과 판매망 강화, 중국산 제품의 시장 도입을 통한 경쟁력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6% 성장을 하였으나 하반기 미국발 금융 위기로 인해 세계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어 연간 매출액은 4,610억원으로 전년대비 7.9% 감소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미국, 서유럽 등 선진시장의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업체간 가격 경쟁, 환경규제(Tier-3) 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국에서의 부품 Sourcing, 운영혁신 활동을 통한 원가절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력 모델의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원가 경쟁력있는 중국산 모델을 바탕으로 저가의 틈새시장 집중공략,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고부가가치 신기종 개발을 통한 수익성을 추구하는 등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여 World Maker로의 성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4) 엔진·소재BG

2008년도의 엔진소재BG 사업은 하반기 불어 닥친 세계적 경기침체로 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가운데서도 제품 라인업 확대, 지속적인 운영혁신 및 품질 개선, 도전적 글로벌 시장 공략 등을 통해 전년 대비 20.0% 증가한 4,562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미주 및 유럽 시장을 겨냥한 Tier3 엔진 탑재 모델 개발 등 총 18개 모델의 엔진을 개발 완료하여 용도별 다양한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엔진 제품 라인업을 갖추었으며, 미국 내 엔진공장 건설로 북미 가스엔진 시장 공략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중국 합작공장 추진과 기술제휴 등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엔진분야의 사업영역도 확대하였습니다.

2009년은 전체적인 시장 축소가 예상되나 국내외 대형고객 탑재율 증대, 중국 CV엔진 수출 강화, 북미CNG 사업확대로 2008년 대비 5.9% 성장한 4,829억원의 매출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북미 CNG엔진은 미국 EPA 인증을 획득하며 미국 전역은 물론 향후 선진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고, 중국의 소주금룡, 북미의 Generac, PSI 등 Global Big Account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시장점유율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매출 성장 활동과 함께 운전자본 축소 등 Cash Flow 개선으로 투자여력을 확보하고, 운영혁신을 통한 기술 및 원가 경쟁력 확보, 글로벌 수준의 생산능력 확보, 판매 및 서비스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내부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려 이익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5) 방산BG

2008년도의 방산BG 사업은 비호 2차 양산 초도물량의 성공적인 납품에 힘입어 최초로 매출 5천억원을 돌파했으며 K21 보병전투장갑차 1차 양산계약 등으로 6,799억원의 수주를 달성, 총 1조 7천억원의 수주잔고를 확보하여 향후 수년간 안정적 사업기반의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핵심기술과제의 사업권 획득으로 사업영역 확대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수출을 통한 선순환규모 확대를 위해 중동 및 동남아지역에 대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2009년에는 전문화, 계열화 폐지에 따른 경쟁체제 진입 및 ADD의 역할변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방산사업부문을 물적분할, 부채비율 87%의 초우량 방산전문기업인 두산DST(주)를 설립, 경영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통한 주주가치 극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K21보병전투장갑차 2차 양산계약과 비호사업 양산물량증가, K21보병전투장갑차 초도납품 등으로 수주와 매출을 각각 6,000억원 이상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력과 생산설비 등을 확충할 예정이며, 미래사업 획득을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확대하고, 중동 및 동남아지역 수출활동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글로벌방산업체'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대차대조표

<대 차 대 조 표>

제 9 기 2008. 12. 31 현재

제 8 기 2007.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9 기(당기)	제 8 기(전기)
자산		
Ⅰ.유동자산	1,995,856,155,830	1,288,424,312,814
Ⅱ.비유동자산	2,929,772,558,183	1,918,898,527,386
(1)투자자산	1,458,664,121,445	1,054,488,365,484
(2)유형자산	1,246,851,677,617	753,669,392,359
(3)무형자산	70,401,895,610	72,006,827,392
(4)기타비유동자산	153,854,863,511	38,733,942,151
자산총계	4,925,628,714,013	3,207,322,840,200
부채		
Ⅰ.유동부채	2,045,995,909,916	1,119,568,868,011
Ⅱ.비유동부채	1,333,928,697,298	978,435,969,055
부채총계	3,379,924,607,214	2,098,004,837,066
자본		
Ⅰ.자본금	841,036,920,000	840,786,920,000
Ⅱ.자본잉여금	612,500,000	
Ⅲ.자본조정	(195,409,358,196)	(195,877,583,568)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571,153,189,390	(34,661,198,500)
Ⅴ.이익잉여금	328,310,855,605	499,069,865,202
자본총계	1,545,704,106,799	1,109,318,003,134
부채및자본총계	4,925,628,714,013	3,207,322,840,200

- 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

제 9 기 (2008. 1. 1 부터 2008. 12. 31 까지)

제 8 기 (2007. 1. 1 부터 2007.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9 기	제 8 기
I.매출액	3,963,378,988,959	3,719,881,302,554
II.매출원가	3,010,992,680,995	2,843,449,279,999
III.매출총이익	952,386,307,964	876,432,022,555
IV.판매비와관리비	605,020,366,614	555,124,493,537
V.영업이익	347,365,941,350	321,307,529,018
VI.영업외수익	511,101,179,276	198,542,857,874
VII.영업외비용	943,577,059,061	234,073,519,101
VIII.법인세차감전순이익	(85,109,938,435)	285,776,867,791
IX.법인세비용	36,708,152,432	105,515,259,541
X.당기순이익	(121,818,090,867)	180,261,608,250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9 기 (2008. 1. 1 부터 2008. 12. 31 까지)

제 8 기 (2007. 1. 1 부터 2007.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9 기	제 8 기
I. 처분전 이익잉여금	(113,739,455,149)	183,786,221,114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294,470,048	3,524,612,864
2. 회계변경의 누적효과	5,784,165,670	0
3. 당기순손실	(121,818,090,867)	180,261,608,250
II.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145,000,000,000	54,233,333,334
1.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90,000,000,000	54,233,333,334
2. 시설적립금	55,000,000,000	0
합계	31,260,544,851	238,019,554,448
III. 이익잉여금처분액	26,461,107,600	235,725,084,400
1. 이익준비금	3,000,000,000	6,000,000,000
2.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0	120,000,000,000
3. 배당금	23,461,107,600	54,725,084,400

과 목	제 9 기	제 8 기
가. 현금배당	23,461,107,600	54,725,084,400
주당배당금(율)		
- 당기: 150원(3%)		
- 전기: 350원(7%)		
4. 시설적립금	0	55,000,000,000
Ⅳ. 차기이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4,799,437,251	2,294,470,048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당기(제 9 기)	전기(제 8 기)
주당배당금(원)	150	350
배당총액(원)	23,461,107,600	54,725,084,400
시가배당율(%)	1.0	1.2

□ 정관 일부 개정의 건

현 행(개정전)	개 정(안)	개정사유
제11조(신주인수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11조(신주인수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폐지 및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제정/시행 및 상법 개정 /시행에 따라 법률 명칭 변경 (이하 동일함)
2.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권거래법	4.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p>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제13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는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 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이 회사의 경영, 해외영업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증권거래법 제54조의 5 제4항 제2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 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 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 한다)는 제외 한다. 2. 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 한다)는 제외한다.</p> <p>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 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제13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이사, 감사, 피용자를 의미하며, 상법 제542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피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는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 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이 회사의 경영, 해외영업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인을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상법 제54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 (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 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상법 제542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p> <p>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임직원의 의미 명시 증권 거래법 폐지 및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제정/시행 및 상법 개정/ 시행에 따라 법률 명칭 변경 (이하 동일함)</p> <p>상법 제542조의3 제3항 후문과 일치</p> <p>증권거래법 폐지 및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제정/시행 및 상법 개정 /시행에 따라 법률 명칭 변경 (이하 동일함)</p>
---	---	--

<p>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p> <p>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p> <p>제15조(명의개서대리인)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p> <p>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육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5.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육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5.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제24조(소집통지 및 공고)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이상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p> <p>제4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증권거래법 제54조의6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p> <p>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p> <p>제15조(명의개서대리인)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p> <p>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육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제19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육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p> <p>제24조(소집통지 및 공고)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p> <p>제49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p>	<p>법률개정 내용 반영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증권거래법상 평가 관련 규정 삭제됨)</p>
---	--	--

<p>제55조의2(주식소각)</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1항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 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 일 것.</p> <p>제56조(중간배당)</p> <p>① 이 회사는 6월 30일 17:0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p> <p>② 제 ①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p> <p>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상의 순재산 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전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p> <p>1. 직전결산의 자본의 액</p> <p>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p> <p>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 배당하기로 정한 금액</p> <p>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p> <p>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p> <p>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자본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 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제55조의2(주식소각)</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p>1.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 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 일 것.</p> <p>제56조(분기배당)</p> <p>① 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p> <p>② 제1항의 분기배당은 이사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각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p> <p>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 상의 순재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p> <p>1. 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p> <p>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p> <p>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 배당하기로 정한 금액</p> <p>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p> <p>5.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p> <p>6. 당해 사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p> <p>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증권거래법 폐지 및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폐지 및 자본 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제정/시행 및 상법 개정 /시행에 따라 법률 명칭 변경 (이하 동일함)</p> <p>배당정책의 유연화</p>
--	---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재경	50.6.27	-	없음	이사회
박정원	62.3.09	-	특수관계인	이사회
김용성	62.1.02	-	없음	이사회
이오규	58.2.11	-	없음	이사회
이명재	43.3.05	사외이사후보	없음	사추위
양 호	43.9.22	사외이사후보	없음	사추위
이영탁	47.2.05	사외이사후보	없음	사추위
윤용석	54.10.12	사외이사후보	없음	사추위
총 (8) 명				

- 사추위 :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이재경	㈜두산 부회장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前) 두산음료(주) 상무	없음
박정원	두산건설(주) 부회장	美 Boston대학교 경영학 석사(MBA) 前) ㈜두산 대표이사 사장	없음
김용성	두산인프라코어(주) 대표이사 사장	美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경영학 석사(MBA) 前) 맥킨지 컨설턴트 서울사무소 파트너	없음
	두산인프라코어(주)	고려대 경영학 학사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이오규	부사장	前) 경영관리부문 재무팀, 기획조정실	없음
이명재	법무법인(유한) 태 평양 고문변호사	서울대 법학 학사 前) 제31대 검찰총장	없음
양 호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겸임교수	서강대 경제학 학사, 美 뉴욕주립대 대학원 경제학 수료 前) 뉴욕은행 한일지역대표, 美 NARA은행 은행장	없음
이영탁	세계경제연구원 원장, 세계거래소 연맹(WFE) 이사회 이사	성균관대학원 경제학박사 前)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초대 이사장	없음
윤용석	법무법인 광장 변 호사, 서울고법 조 정위원	美 워싱턴 대학교 Law School 석사(LLM) 前)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최대주주와의 관계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윤용석	54.10.12	사추위	없음	사외이사후보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약력·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윤용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서울고법 조정위원	美 워싱턴 대학교 Law School 석사(LLM) 前) 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15(8)	15(8)

구 분	전 기	당 기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50억원	150억원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 회사경영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회사의 단기 및 중장기 경영계획 달성을 위한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 및 협조를 유도하고 우수 임직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함

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부여주식종류 : 기명식 보통주

- 부여가격 : 13,700원

- 상기 사항은 이사회 부의를 위한 내용(기준일: 3월 6일)으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기준일은 주주총회 전일이므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부여대상자, 부여할 주식수 및 행사가격은 변경될 수 있음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	주식수
강승천	상무	임원	보통주	4,800
강우규	상무	임원	보통주	5,100
고광을	상무	임원	보통주	2,400
고정	상무	임원	보통주	2,500
공영권	상무	임원	보통주	2,400
공희석	상무	임원	보통주	2,500
권순영	전무	임원	보통주	6,600
권영민	상무	임원	보통주	2,400
권휘곤	상무	임원	보통주	5,100
김광수	상무	임원	보통주	2,500
김광진	상무	임원	보통주	2,500
김기중	상무	임원	보통주	2,400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	주식수
김낙인	상무	임원	보통주	2,500
김동철	전무	임원	보통주	17,200
김병민	상무	임원	보통주	2,500
김병주	전무	임원	보통주	14,900
김상규	전무	임원	보통주	4,900
김상호	상무	임원	보통주	2,500
김석구	상무	임원	보통주	5,000
김성락	상무	임원	보통주	2,500
김요섭	상무	임원	보통주	4,800
김용성	사장	임원	보통주	86,400
김인성	상무	임원	보통주	2,500
김재섭	전무	임원	보통주	29,300
김정배	상무	임원	보통주	2,500
김정현	상무	임원	보통주	2,400
김주식	상무	임원	보통주	2,500
김진설	상무	임원	보통주	2,400
김철	상무	임원	보통주	5,100
김태형	상무	임원	보통주	2,500
김형주	상무	임원	보통주	4,800
노중호	상무	임원	보통주	2,600
마승록	상무	임원	보통주	2,500
박국현	상무	임원	보통주	1,900
박상현	상무	임원	보통주	8,000
박종렬	상무	임원	보통주	5,100
박종필	상무	임원	보통주	2,500
박찬혁	상무	임원	보통주	2,500
변충희	상무	임원	보통주	2,500
서성교	상무	임원	보통주	2,500
손태웅	상무	임원	보통주	2,500
신동성	상무	임원	보통주	2,400
신오식	전무	임원	보통주	4,900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	주식수
안종선	상무	임원	보통주	6,800
안희은	상무	임원	보통주	2,500
양승우	상무	임원	보통주	2,400
양시영	상무	임원	보통주	2,400
오승현	상무	임원	보통주	2,400
윤여현	상무	임원	보통주	2,500
이건화	상무	임원	보통주	2,400
이광성	전무	임원	보통주	10,500
이동인	상무	임원	보통주	5,700
이상엽	상무	임원	보통주	2,400
이상하	전무	임원	보통주	25,700
이성연	전무	임원	보통주	14,000
이오규	부사장	임원	보통주	33,800
이우영	전무	임원	보통주	9,700
이재경	부회장	임원	보통주	7,200
이재윤	전무	임원	보통주	5,700
이정근	전무	임원	보통주	9,700
이종대	상무	임원	보통주	2,700
이종완	상무	임원	보통주	2,400
이준길	상무	임원	보통주	6,500
이호철	상무	임원	보통주	8,400
이흥구	전무	임원	보통주	16,100
이화석	상무	임원	보통주	2,600
이황렬	전무	임원	보통주	29,300
임종만	상무	임원	보통주	2,500
임항수	상무	임원	보통주	2,400
장달식	상무	임원	보통주	2,400
장명호	전무	임원	보통주	17,200
장석현	상무	임원	보통주	2,500
장윤조	상무	임원	보통주	2,500
장준현	상무	임원	보통주	2,500

성명	직위	직책	교부할 주식	
			주식의종류	주식수
장호철	상무	임원	보통주	2,400
정해익	상무	임원	보통주	2,500
조두연	부사장	임원	보통주	13,900
조민호	상무	임원	보통주	2,400
조봉호	부사장	임원	보통주	52,000
조영진	상무	임원	보통주	2,500
주재진	상무	임원	보통주	2,400
주종윤	상무	임원	보통주	2,400
최승철	부회장	임원	보통주	51,800
최영균	상무	임원	보통주	2,500
최원준	상무	임원	보통주	2,500
최재우	전무	임원	보통주	6,600
최종철	전무	임원	보통주	4,900
최훈	상무	임원	보통주	2,500
한광석	상무	임원	보통주	2,400
총(89)명				총(677,800)주

(*성명 가나다순)

다.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 가격, 기간 기타 조건의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부여방법	주식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기명식 보통주, 677,800주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 행사가격 : 상법 제340조의2 제4항에 의거 산출한 가격과 5,000원 중 높은 금액 - 행사기간 :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3년	

구 분	내 용	비 고
	후 7년 이내로 하며,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여야 행사 할 수 있음	
기타 조건의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주총 승인후 시행 가능하므로 시행일을 기준으로 할 때 부여대상자, 부여할 주식수 및 행사가격은 변동될 수 있음 - 부여일 이후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액면분할 및 병합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조정함 - 관련법령 및 당사 정관등에 근거하여 상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할 수 있음 - 여타 사항은 정관, 상법, 자본시장통합법 등의 해당 규정에 따름 	

라.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년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 최근일 현재 잔여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총발행주식수	부여가능주식의 범위	부여가능주식의 종류	부여가능주식수	잔여주식수
168,207,384	발행주식총수의 15%	기명식 보통주	25,231,107	23,203,407

- 최근 2사업연도와 당해사업연도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

사업년도	부여일	부여인원	주식의 종류	부여 주식수	행사 주식수	실효 주식수	잔여 주식수
2009년	2008년 3월21일	112	보통주	439,300	-	41,500	397,800
2008년	2007년 3월16일	93	보통주	474,900	-	52,500	422,400
2007년	2006년 3월17일	87	보통주	344,000	-	64,300	279,700
계		총(292)명		총(1,258,200)주	총(-)주	총(158,300)주	총(1,099,900)주

- 2008. 3. 21 부여된 439,300주와 2007. 3. 16. 부여된 474,900주 중 부여일로부터

2년 이내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 인하여 2009. 3. 10. 이사회 결의에 의해 76,600주 (취소분: 2007년 35,100주 및 2008년 41,500주)가 취소되어 잔여주식 수는 1,099,900주임.

- 2007. 3. 16. 부여된 474,900주 중 부여일로부터 2년 이내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 인하여 2008. 2. 26. 이사회 결의에 의해 17,400주 취소되어 잔여주식 수는 457,500주임.

- 2006. 3. 17. 부여된 344,000주 중 부여일로부터 2년 이내 자의에 의한 퇴직으로 인하여 2006. 2. 23. 이사회 결의에 의해 22,600주 부여 취소되었고, 2008. 2. 26. 이사회 결의에 의해 41,700주 취소되어 잔여주식 수는 279,700주임.

- 2002. 7. 16. 양재신 외 6명에게 부여된 500,000주 중 200,000주는 이미 행사되었고, 50,000주는 취소되어 잔여주식수는 250,000주임.

- 현재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총수는 987,200주임.